

# 종합병원 행정직의 자아존중감, 피로 및 사회심리적 스트레스가 우울에 미치는 융복합적 영향 분석

배상윤, 김승희\*  
전주비전대학교 보건행정학과 교수

## Analysis of Convergent Influence of Self-Esteem, Fatigue and Psychosocial Stress on Depression among General Hospital Administrative Staff

Sang-Yun Bae, Seung-Hee Kim\*  
Professor, Dept. of Health Administration, Vision University of Jeonju

요 약 종합병원행정직의 자아존중감, 피로 및 사회심리적 스트레스와 우울 간의 관련성을 파악하고 우울에 미치는 융복합적 영향을 조사하였다. 조사대상은 임의로 선정된 J시의 9개 종합병원에서 무작위로 추출된 재직자 201명으로 하였으며, 자료수집은 2017년 7월 3일부터 2017년 7월 29일까지 구조화된 무기명 자기기입식 설문지를 통해 이루어졌다. 우울은 피로의 3가지 하위요인 및 사회심리적 스트레스와는 양의 상관관계를, 자아존중감과는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공분산구조분석 결과, 자아존중감은 피로 및 사회심리적 스트레스보다는 우울에 더 큰 영향을 미쳤으며, 피로 및 사회심리적 스트레스가 높아질수록, 자아존중감이 낮아질수록 우울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볼 때, 종합병원 행정직의 우울과 관련된 자아존중감, 피로 및 사회심리적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분석결과는 종합병원 행정직의 우울을 낮추는 산업보건교육 및 직무관리에 활용이 기대된다. 추후연구에서는 종합병원 행정직의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융복합적인 추가요인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주제어 : 종합병원 행정직, 우울, 자아존중감, 피로, 사회심리적 스트레스, 융복합적 영향

**Abstract** We study convergent influence on depression and its association with self-esteem, fatigue and psychosocial stress among General Hospital Administrative Staff(GHAS). The subjects were 201 randomly extracted GHAS from 9 general hospitals in J City, Data collection was carried out via a structured self-administered questionnaires from Jul. 3rd, 2017 to Jul. 29th, 2017. Depression was positively correlated with three sub-domains of fatigue and psychosocial stress, and it was negatively correlated with self-esteem. With the analysis of covariance structure, depression was more influential on self-esteem than fatigue and psychosocial stress. The study found the higher fatigue and psychosocial stress, and the lower self-esteem tend to increase depression. The results indicate that the efforts, to increase self-esteem, and to decrease fatigue and psychosocial stress, are required to decrease the depression of GHAS. The results are expected to be useful for industrial health education and job management to decrease the depression of GHAS. In the following study, the analysis about convergent additional factors of influence on the depression of GHAS will be needed.

**Key Words** : Hospital Administrative Staff, CES-D, RSE, MFS, PWI-SF, Convergent influence

\*Corresponding Author : Seung-Hee Kim(shkim@jvision.ac.kr)

Received July 3, 2018

Accepted September 20, 2018

Revised August 27, 2018

Published September 28, 2018

## 1. 서론

종합병원은 경제의 급격한 성장, 인구구조의 변화, 의료기관의 경쟁 증가, 개인의 소득 향상, 높은 질의 의료서비스 요구 및 의료재정에 대한 사회적 부담 증가 등의 외부환경의 격변에 부응하여 외형적인 성장을 거듭하여 왔다. 하지만, 양질의 의료 및 행정 서비스를 통한 병원 경영의 내적 성장과 경영혁신에 있어서는 만족할 만한 수준에 도달했다고 보기는 어렵다[1,2].

종합병원은 환자에 대한 서비스 접점이 인력에 있는 노동집약적인 구조로 의료 및 행정의 이원화된 구조로 구성되어 있다[1]. 병원서비스에 대한 양적 및 질적 측면의 높은 질의 요구와 경영합리화를 통한 경쟁력 확보는 의료인력 및 행정인력의 직무부담의 증가, 직무의 고도화 및 직무능력 향상에 대한 요구를 끊임없이 높이고 있는 실정이다[3]. 이렇듯 종합병원은 다양한 직무를 수행하는 협업이 필요한 전문적이고 유기적인 업무 체계를 운영함으로써 인적자원 및 과업의 불균형이 존재하고, 전문분야별로 이질감 및 갈등이 유발될 수 있다[4]. 또한 분야별로 인력 부족 및 신규 채용의 어려움도 발생되고 있어 병원운영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1].

종합병원의 행정직원은 원무행정, 의무기록 및 건강보험 심사청구 등의 업무를 담당하여 병원의 경영관리 분야의 직무를 수행하는 인력이다. 행정직원은 병원원무뿐만 아니라, 병원이 처해있는 현황을 파악하여 기관의 장점 및 단점을 관리하고 외부환경에 따른 기회 및 위협에 대처하는 경영혁신에 앞장서고 있다[1,2]. 이렇듯 행정직원은 직무부담이 가중되고 있으며[3], 업무수행 과정에서의 돌발적인 상황, 역할 모호성 및 업무의 자율성 결여 등으로 만성적인 정서 문제에 노출되어 있고[2]. 불건강 상태에 놓여 있는 환자 및 주변인을 응대하는 직무특성이 발생시키는 심리적인 어려움에 노출되어 있다[4].

종합병원 행정직원은 외부환경 변화를 능동적으로 수용하는 직무압박, 타 분야 인력과의 업무갈등 및 환자응대에 따른 반복적인 스트레스로 인하여 우울과 같은 심리 및 정서적 문제가 발생되고 있다[5,6]. 우울은 무가치감 및 무력감 등의 정서적인 문제이며, 개인의 희망과 현실적 괴리가 초래하는 심리적인 문제로 볼 수 있다[7]. 우울은 정신건강의 중요한 문제로[7,8], 본인뿐 만 아니라 주변인에게 까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고[9], 병원의 이미지를 저하시키고, 경쟁력 및 노동생산성을 약화시킬

수 있어서[5], 행정직원의 우울수준을 관리하는 것은 개인의 정신건강 및 병원조직의 효율적인 인사관리의 필수 불가결한 요소로 판단된다. 따라서 종합병원 행정직원의 우울수준을 낮출 수 있는 관련요인에 대한 조사 및 분석이 필요하다.

종합병원 행정직원의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모형을 가정하기 위하여 기존연구를 조사해 본 결과, 자아존중감, 피로 및 스트레스 등이 연관성을 보이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자아존중감[10]은 사회심리적 스트레스와 관련되어 피로에 영향을 미치고[11], 낮은 자아존중감은 높은 우울과 관련성이 있으며[12], 피로 및 우울의 연관성이 보고되어 있으며[13,14],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으로 자아존중감 및 스트레스가 지적되어 있으며[9,8], 직장생활의 스트레스는 자아존중감과 연관되어 피로 및 우울과 관련성이 보고되었고[15], 스트레스를 관리하여 자아존중감을 높임으로써 우울이 완화될 수 있다[16]. 이러한 기존 조사들은 산업체 근로자, 병원의 간호사 등의 우울문제를 다루고 있고, 관련된 개개 요인과 우울의 부분적인 연관성을 분석하였으나, 자아존중감, 피로 및 사회심리적 스트레스가 상호 관련되어 있고 서로 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지 못하였다는 한계점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기존연구를 참고하여 요인 간의 관련성에 의한 구조모형을 제시하고 자아존중감, 피로, 사회심리적 스트레스 및 우울의 상대적 중요도와 영향력을 분석하는 융복합적인 접근을 시도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종합병원 행정직원의 자아존중감, 피로, 사회심리적 스트레스 및 우울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고 이들 요인 간 및 우울에 미치는 융복합적인 영향력을 파악하여 병원의 양질의 병원행정 서비스 요구에 대한 사회적 요구를 효율적으로 수용하고 병원의 외부환경 변화에 민첩하게 대응함으로써 의료기관의 경쟁력 증대를 위한 조직인사관리 및 행정직원의 산업보건교육에 활용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

## 2. 연구방법

### 2.1 조사대상

2017년 7월 3일부터 2017년 7월 29일까지 J 시 소재 임의로 선정된 9개 종합병원의 행정직원을 대상으로 하였다. 자료의 적절한 표본 수는 G\*Power 3.1 프로그램[17]



### 3. 연구결과

#### 3.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Table 2는 조사대상자의 성별, 연령 및 현직장 근무기간을 보이고 있다. 여성 73.6%, 남성 26.4%이었고, 연령은 35세이상 57.7%, 35세미만 42.3%이었으며, 현직장 근무기간은 5년미만이 70.1%, 5년이상이 29.9%로 나타났다.

Table 2. General Characteristics of respondents (N=201)

Variables		N(%)
Sex	Male	53(26.4)
	Female	148(73.6)
Age(yrs)	<35	85(42.3)
	35≤	116(57.7)
Employment period in the current job(yrs)	<5	141(70.1)
	5≤	60(29.9)
Total		201(100.0)

#### 3.2 우울과 관련변수들 간의 상관관계

Table 3에서 우울과 관련요인들 간의 상관관계를 보면, 우울은 피로의 3가지 하위요인인 전반적 피로도, 일상생활 기능장애 및 상황적 피로와 사회심리적 스트레스는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자아존중감과는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Table 3. Correlation coefficients between model factors

Variables	1	2	3	4	5
1. Depression(CES-D)	1				
2. Self-esteem(RSE)	-.287*	1			
3. Global fatigue	.262*	-.046	1		
Fatigue(MFS)	4. Daily dysfunctioning	.142	.036	.443**	1
	5. Situational fatigue	.185*	-.032	.440**	.514**
6. psychosocial stress(PWI-SF)	.499*	-.579**	.259*	.271**	.182*

\* : p<.05, \*\* : p<.01.

#### 3.3 공분산 구조분석 결과

2개의 외생개념(자아존중감, 피로)과 2개의 내생개념(사회심리적 스트레스, 우울)을 이론적 변수로 모델을 구축하였다. 자아존중감의 관측변수는 RSE로, 피로의 관측변수는 FAI의 전반적 피로도, 일상생활 기능장애 및 상황적 피로로, 사회심리적 스트레스의 관측변수는 PWI-SF로, 우울의 관측변수는 CES-D로 하였다.

Table 4에서 모델적합도는, 절대적합지수에서  $\chi^2=12.298(df=6)$ 이며,  $\chi^2/df=2.048$ 로 판단기준치 3이하이고, 유의확률은 판단기준치 .05이상인  $p=.056$ 이었고, 원소간 평균차이(RMR)은 .05이하인 .028이였으며, 기초부합치(GFI)는 .9이상인 .980이였고, 조정부합치(AGFI)도 .9이상인 .931이였으며, 근사제곱근평균제곱오차(RMSEA)는 .08이하인 .072로 나타났다. 한편, 증분적합지수에서는, 표준적합지수(NFI)는 .9이상인 .972이였고, 비표준적합지수(TLI)는 .9이상인 .963이였으며, 비교부합지수(CFI)는 .9이상인 .985로 나타나, 좋은 모델로 볼 수 있었다.

Table 4. Model identification

Model Fit	
Absolute fit index	$\chi^2 = 12.982(df = 6), \chi^2/df = 2.048, p = .056$
	RMR(Root Mean square Residual) = .028
	GFI(Goodness of Fit Index) = .980
	AGFI(Adjusted Goodness of Fit Index) = .931
Incremental fit index	RMSEA(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 = .072
	NFI(Normed Fit Index) = .972
	TLI(Tucker-Lewis Index) = .963
	CFI(Comparative Fit Index) = .985

Table 5 및 Fig. 1에서 내생잠재변수에 대한 외생잠재변수의 효과를 보면, 표준경로계수가 자아존중감은 우울에 대해 -.199로 부(-)의 직접효과, 사회심리적 스트레스에 대해 -.452로 부(-)의 직접효과, 피로는 우울에 대해 .173로 정(+)의 직접효과, 사회심리적 스트레스에 대해 .426으로 정(+)의 직접효과가 있었다. 내생변수간의 효과를 보면, 표준경로계수가 사회심리적 스트레스는 우울에 대해 .318로 정(+)의 직접효과가 있었다. 또한, 종속변수가 독립변수에 의해서 설명되는 비율(SMC)로 볼 때, 자아존중감 및 피로가 사회심리적 스트레스를 43.0%, 자아존중감 및 피로가 우울을 29.5% 설명하였다. 우울에 대한 피로의 경로계수가 5%수준으로 유의하였고 그 외 모든 경로계수가 1%수준으로 유의하였다.

Table 5. Structural model of subjects

	Endogenous variable	Exogenous variable		Coefficient of determination
	Psychosocial stress	Self-esteem	Fatigue	SMC <sup>¶</sup>
Psychosocial stress		-1.044 (-.452)**	.750 (.426)**	.430
Depression	.228 <sup>¶</sup> (.318)**	-.329 (-.199)**	.218 (.173)*	.295

\* : p<.05, \*\* : p<.01

¶ : Regression Weights(Standardized Regression Weights)

¶ : SMC(Squared Multiple Correlation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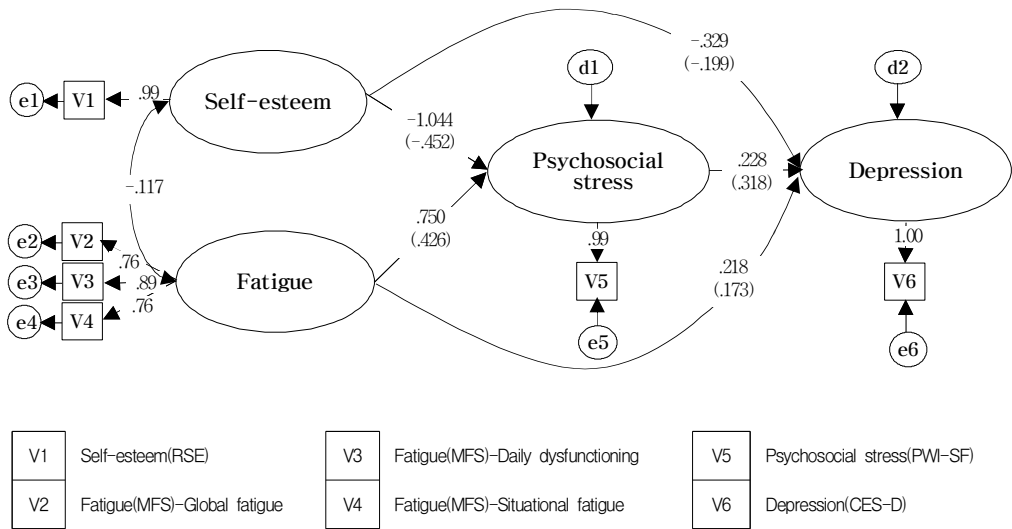


Fig. 1. Path diagram of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 4. 고찰

본 연구는 중합병원 행정직원의 자아존중감, 피로 및 사회심리적 스트레스가 우울에 미치는 융복합적인 영향력을 파악해보고자 시행되었다.

우울과 관련요인들 간의 상관관계를 보면, 우울은 자아존중감과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를, 피로의 3가지 하위요인인 전반적 피로도, 일상생활 기능장애 및 상황적 피로와 사회심리적 스트레스와는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는데, 우울과 상관관계를 보이는 자아존중감 [8,16], 피로[13-,15] 및 사회심리적 스트레스[8,16]는 본 조사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났다. 이는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 신체 및 정신적인 의욕저하 및 무관심, 몸과 마음의 스트레스는 우울과 밀접하게 상관된 것으로 판단된다. 중합병원 행정직원의 환자 응대, 업무 갈등 역할 모호성 등의 복잡하고 긴장이 높은 업무환경이 우울을 높이고 자신의 가치를 높이 평가하는 것은 우울을 낮추는 것으로 보여, 이들 요인들을 관리함으로써 우울을 낮추는 노력이 필요하다.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자아존중감, 피로 및 사회심리적 스트레스 간의 인과관계를 추정하기 위하여 자아존중감 및 피로를 외생잠재변수로, 사회심리적 스트레스 및 우울을 내생잠재변수로 하여 공분산구조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모델적합성은 양호하였으며, 경로계수에서 사회심리적 스트레스는 자아존중감으로부터 -.452, 피로로부터 .426으로 나타났다, 우울은 자아존중감으로부터

-.199, 피로로부터 .173, 사회심리적 스트레스로부터 .318로 나타났다. 자아존중감이 낮을수록[12,15], 피로가 높을수록[13], 사회심리적 스트레스가 높을수록[8,9] 우울이 높다는 기존의 보고는 중합병원 행정직원에서도 확인되었다. 중합병원 행정직원은 직무가중[3], 환자 응대의 심리적 부담[4] 및 이원화 및 비자율성 업무 특성[2] 등이 자아존중감을 낮추고, 피로 및 사회심리적스트레스를 높여 우울문제를 야기하는 직종 특성이 있다. 중합병원 행정직원의 우울을 낮추기 위해서는 이들 요인들을 우울의 위험인자로 선행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었다. 즉 중합병원 행정직원은 자신의 존재가치 및 유능감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 피로의 전반적인 부분을 개선하며, 피로에 의한 기능장애를 낮추고, 피로를 유발하는 다양한 상황을 개선하며, 심리적 및 육체적인 스트레스를 완화하는 개인의 노력 및 외부의 지원이 우울을 낮출 수 있는 것으로 보였다.

본 연구는 일개지역의 소규모 표본을 대상으로 횡단적 연구이므로 이 결과를 전체 중합병원 행정직원으로 확대 해석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또한 조사에서 사용된 척도 등의 측정은 응답자의 주관적인 자기기입식 방식에 의존하였으므로 응답편의(response bias)의 위험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러나 중합병원 종사자의 우울에 대한 조사가 의료직이나 의료지원직에 초점을 맞추어 시행되어 온 실정에서, 경쟁력 강화가 요구되고 있는 병원행정직원의 우울수준 조사를 시행하여 인사조직 관리에 활용하고자 했다는 점에서 본 조사의 의의가 있다고 본다. 후속

연구에서는 최근에 우울과 관련성이 보고되고 있는 전자 의무기록시스템 만족도와 직무스트레스[26,27], 직업스트레스 및 직업안정성[28], 스트레스[29] 등과 같은 추가요인들과 종합병원 행정직원의 우울과의 관련성에 대한 조사도 필요하다.

## 5. 결론

본 연구는 종합병원 행정직원의 자아존중감, 피로 및 사회심리적 스트레스가 우울에 미치는 융복합적인 영향력을 파악하였다. 2017년 7월 3일부터 2017년 7월 29일까지 임의로 선정된 J지역 소재 9개 종합병원에서 무작위 추출된 병원행정직 201명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가 분석되었다. 우울은 피로의 3가지 하위요인인 전반적 피로도, 일상생활 기능장애 및 상황적 피로와 사회심리적 스트레스는 양의 상관관계를, 자아존중감과는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공분산 구조분석 결과, 자아존중감, 피로, 사회심리적 스트레스 및 우울의 인과관계가 확인되었으며, 우울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사회심리적 스트레스로 나타났다. 따라서 우울에 융복합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된 요인들인, 자아존중감을 높이고, 피로 및 사회심리적 스트레스를 낮추는 산업보건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종합병원 행정직원의 우울을 낮추는 직무관리 및 조직인사관리에 활용할 필요가 있다.

## REFERENCES

- [1] S. H. Kim & S. Y. Bae. (2017). Analysis of convergent factors related to job satisfaction among hospital administrative staff,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15(4), 365-375. DOI : 10.14400/JDC.2017.15.4.365
- [2] S. H. Kim & S. Y. Bae. (2014). Factors related to occupational stress among hospital administrative staff,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12(10), 433-443. DOI : 10.14400/JDC.2014.12.10.433
- [3] S. Y. Bae & S. H. Kim. (2017). Analysis of convergent influence of self efficacy, job characteristics and occupational stress on job satisfaction among hospital administrative staff,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15(7), 239-246. DOI : 10.14400/JDC.2017.15.7.239
- [4] S. H. Kim & S. Y. Bae. (2017). Convergent factors related to job burnout among hospital administrative staff,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15(10), 349-356. DOI : 10.14400/JDC.2017.15.10.349
- [5] S. H. Kim & S. Y. Bae. (2018). A study on the convergent factors related to depression among some administrative staff in general hospital,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16(6), 251-258. DOI : 10.14400/JDC.2018.16.6.251
- [6] S. Y. Bae & S. H. Kim. (2018). Analysis of convergent influence of organizational commitment questionnaire, type A behavior pattern and depression on job burnout among hospital administrative staff,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16(3), 345-351. DOI : 10.14400/JDC.2018.16.3.345
- [7] S. H. Kim & S. Y. Bae. (2015). Analysis of convergent factors related to depression among some college women of health affiliated educations,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13(10), 367-375. DOI : 10.14400/JDC.2015.13.10.367
- [8] N. H. Jo & C. H. Seong. (2016). Effects of stress and self-esteem on depression in middle-aged women and middle-aged men,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7(6), 89-97. DOI : 10.15207/JKCS.2016.7.6.089
- [9] H. S. Lee & Y. Ko. (2017). The effects of self-esteem, stress, and social support on depression among middle-aged women, *Journal of Korean Public Health Nursing*, 31(1), 58-70. DOI : 10.5932/JKPHN.2017.31.1.58
- [10] S. Y. Bae & S. H. Kim. (2016). Analysis of convergent influence of self esteem, depression, hopelessness, locus of control and type a behavior pattern on job seeking stress among some college women,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14(12), 323-333. DOI : 10.14400/JDC.2016.14.12.323
- [11] S. Y. Bae & S. H. Kim. (2015). Analysis of the influence of human nature factors, mental health factors and fatigue on occupational stress among hospital administrative staff using a structural equation model,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13(3), 221-229. DOI : 10.14400/JDC.2015.13.3.221
- [12] J. S. Jeong & H. K. Lee. (2017). A study on the factors affecting the entry of depression by life cycle - Focusing on the comparison of the three generations of adulthood, middle age and old Age, *Korean Journal of Social Welfare*, 69(2), 117-141. UCI : G901:A-0008233456
- [13] E. J. Lee & S. W. Shin. (2014). The effect of health

- promotion behavior on fatigue and depression among shift nurse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15(4), 2256-2264.  
DOI : 10.5762/KAIS.2014.15.4.2256
- [14] E. H. Hwang. (2015). Influence of sleep quality, depression and fatigue on job stress of geriatric hospital worker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16(8), 5413-5421.  
DOI : 10.5762/KAIS.2015.16.8.5413
- [15] E. H. Park & H. S. Kim. (2017). A study on the factors affecting on worker's quality of life,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15(11), 581-589.  
DOI : 10.140/JDC.2017.15.1.581
- [16] S. Y. Lee & J. S. Lee. (2016). The convergent effect of stress, social support, and self-esteem on depression in female students,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14(12), 335-344.  
DOI : 10.14400/JDC.2016.14.12.335
- [17] F. Faul, E. Erdfelder, A. Lang & A. Buchner. (2007). G\*Power 3: A flexible statistical power analysis program for the social, behavioral, and biomedical sciences, *Behavior Research Methods*, 39(2), 175-191.  
DOI : 10.3758/BF03193146
- [18] M. Rosenberg. (1965). *Society and the adolescent self-image*. Princeton, N.J. : Princeton University Press. 46-68.  
DOI : 10.1126/science.148.3671.804
- [19] B. J. Jon. (1974). Self-esteem: A test of its measurability. *Yonsei Journal*, 11, 107-129.  
UCI : G901:A-0000284955
- [20] J. E. Schwartz, L. Jandorf & L. B. Krupp. (1993). The measurement of fatigue: A new instrument. *J Psychosom Res*, 37(7), 753-762.  
DOI : 10.1016/0022-3999(93)90104-N
- [21] S. J. Chang et al. (2005). Correlates of self-rated fatigue in Korean employees. *Korean J Prev Med*, 38(1), 71-81.  
UCI : G901:A-0002186299
- [22] D. Goldberg. (1978). *Manual of the general health questionnaire*. Windsor : NFER-Nelson.  
ISBN : 0700502130, 9780700502134
- [23] S. J. Chang. (2000). *Standardization of health statistics data and measurement*. Seoul: The Korean Society for Preventive Medicine. 92-143.  
ISBN : 8985573624, 9788985573627
- [24] M. M. Weissman & B. Z. Locke. (1975). Comparison of a self-report symptom rating scale(CES-D) with standardized depression rating scales in psychiatric populations. *Am J Epidemiol*, 102(5), 430-431.  
DOI : 10.1093/oxfordjournals.aje.a112183
- [25] M. J. Cho & K. H. Kim. (1993). Diagnostic validity of the CES-D(Korean Version) in the assessment of DSM-III-R major depression. *J Korean Neuropsychiatr Assoc*. 32(3), 381-399.  
UCI : G901:A-0000932112
- [26] S. C. Choi et al. (2017). The effect of job stress and depression on job satisfaction among workers in small and medium sized enterprises. *Journal of Convergence for Information Technology*, 7(1), 1-9.  
DOI : 10.22156/CS4SMB.2017.7.1.001
- [27] Y. J. Ha. (2017). A Convergence study on the effects of satisfaction of nurses using the electronic medical record system on job stress.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8(5), 69-78.  
DOI : 10.15207/JKCS.2017.8.5.069
- [28] H. S. Kim & S. S. Kim. (2017). A converged study about influences of job stress, job security, depression, family bond, subjective health status, social support on quality of life in married middle-aged male.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8(3), 101-114.  
DOI : 10.15207/JKCS.2017.8.3.101
- [29] N. H. Jo & E. Y. Na. (2017). Analysis of domestic research on depression and stress: focused on the treatment and subjects. *Journal of Convergence for Information Technology*, 7(6), 53-59.  
DOI : 10.22156/CS4SMB.2017.7.6.053

배 상 윤(Bae, Sang Yun) [정회원]



- 2007년 2월 : 충남대학교 보건대학원(보건학석사)
- 2014년 2월 : 충남대학교 대학원(보건학박사)
- 1996년 9월 ~ 현재 : 전주비전대학교 보건행정학과 교수

- 관심분야 : 보건학, 보건교육
- E-Mail : sangyb@jvision.ac.kr

김 승 희(Kim, Seung Hee) [정회원]



- 1995년 2월 : 원광대학교 대학원(보건행정학석사)
- 2007년 2월 : 원광대학교 대학원(보건행정학박사)
- 2008년 3월 ~ 현재 : 전주비전대학교 보건행정학과 교수

- 관심분야 : 보건행정, 건강보험
- E-Mail : shkim@jvision.ac.kr